

엔씨소프트 리니지 파트 II 'The Cross Rancor'

떠나간 유저들의 발길을 돌려라!

Lineage

글 | 플레이포럼 Encia(lineage@playforum.net)

온라인 게임의 선두 주자라 할 수 있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가 '혈맹'을 주제로 한 에피소드 I '말하는 섬'부터 에피소드 XII 인 '아덴'까지의 파트 I을 성공리에 끝마쳤다. 그리고 지난 8월 6일, 테스트서버에서 선보였던 파트 II 정복을 주제로 한 '크로스랭커(엇갈린증오)'의 첫번째 에피소드인 '빛과 그림자'가 본서버에 업데이트 했다. 이와 동시에 새롭게 제작된 브랜드 이미지와 바뀐 서버 선택창, 추가된 캐릭터의 슬롯, 리뉴얼된 디자인까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함께 맞볼 수 있다.

약 150여년전 아인하사드의 미움을 받아 지저로 쫓겨난 다크엘프들이 파트 I 마지막 에피소드인 '아덴'에서 쫓겨난 반왕 켈라우헬과 조우해 상호 이해관계의 일치를 확인, 복수를 위한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파트 II '크로스랭커'는 총 6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다.



업데이트된 첫 번째 에피소드 '빛과 그림자'에서는 파트 II 최대의 적 세력으로 등장하는 신종족 다크엘프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특수 던전인 몽환의 섬이 소개됐다.

다크엘프 - 새로운 클래스의 등장! D A R K

다크엘프는 과거 아인하사드의 미움을 받아 지저로 쫓겨났다는 설정에 맞게 지하세계인 '침묵의 동굴'에서 시작하게 된다. 다크엘프 종족은 기본 모티브인 '암살자'에 걸맞는 기사 이상의 공격력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특성 때문에 무기나 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 다소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를테면 빠른 속도를 위해 중장비갑옷을 착용할 수 없고 도끼나 양손검 등 무거운 무기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엘프에서 파생되었지만 다른 길을 걷어가는 다크엘프에게 요정들의 정령마법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신 그들만의 마법인 '흑정령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

흑정령마법은 암살자에 어울리는 블라인드 하이딩, 다크 블



달라진 캐릭 선택창

B A C K

라이딩, 언케니 닷지 등 기습, 회피성 마법과 버닝 스피릿즈, 웨도우 팅 등 공격력 향상 마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둠의 종족인 다크엘프에게 주어진 이점이라면 게임 내에서의 시야의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존 클래스의 경우 필드의 밤이나 던전 안에서 어두움으로 인해 '램프'나 마법 '라이트'의 도움 없이는 사냥하기에 불편함이 매우 컸지만 다크엘프는 간단한 조작(엘프의 시야 켜/끔)으로 언제 어디서나 낮과 유사한 상태로 볼 수 있다.

물론 요정 클래스의 경우에도 다크엘프의 그것과 비슷한 기능인 '인프라비전'이라는 요정 전용 시야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녹색 전체 화면으로 바뀌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몽환의 섬 - 리니지 최초의 하늘 위에 떠있는 섬

I S L A N D



다크 엘프 남과 여

몽환의 섬은 설정상 상공 위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추상적인 공간으로 NPC와의 대화를 통해 약간의 아테나를 지불하면 들어갈 수 있다. 육지의 끝이 바다로 둘러싸인 다른 지역과 달리 몽환의 섬은 바로 앞에 구름이 깔린 창공이 펼쳐지게 되며



몽환의 섬

다양한 상징물들이 공중에 떠있는 등, 몽환적인 느낌이 강조된 지역이다. 추상적인 공간인 몽환의 섬에 등장하는 몬스터들은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몬스터라는 설정에서 랜덤하게 몬스터의 능력치가 정해져 있다.

즉 같은 이름의 몬스터라 할지라도 난이도 편차가 매우 심해 캐릭터의 강함이나 실력 못지않게 '운'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게이머가 순수하게 사냥을 즐길 수 있도록 캐릭터가 죽을 경우 경험치 손실이나 아이템 드롭 등 어떠한 패널티도 적용되지 않는다. 몽환의 섬에서의 최대 관심거리는 '엘릭서'라는 한 가지 스탯을 영구적으로 올려주는 아이템으로 한 캐릭터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5번이며, 스탯의 최대 수치인 25는 넘길 수 없다. 기존의 보너스 스탯은 레벨 51이상의 유저들에게 레벨업과 동시에 보상으로 주어졌으나 이 엘릭서의 등장으로 인해 조금 더 쉽게 스탯을 올릴 수 있어 캐릭터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이미 수년간 꾸준히 1위 자리를 지켜온 리니지는 그동안 18세 이하 이용금지과 현금 거래 등 외부적인 문제들로 인한 게임 내에서의 패치 등으로 점점 유저들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업데이트된 리니지 파트 II가 과연 외부 세력(?)과 유저들에게 모두 다 환영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